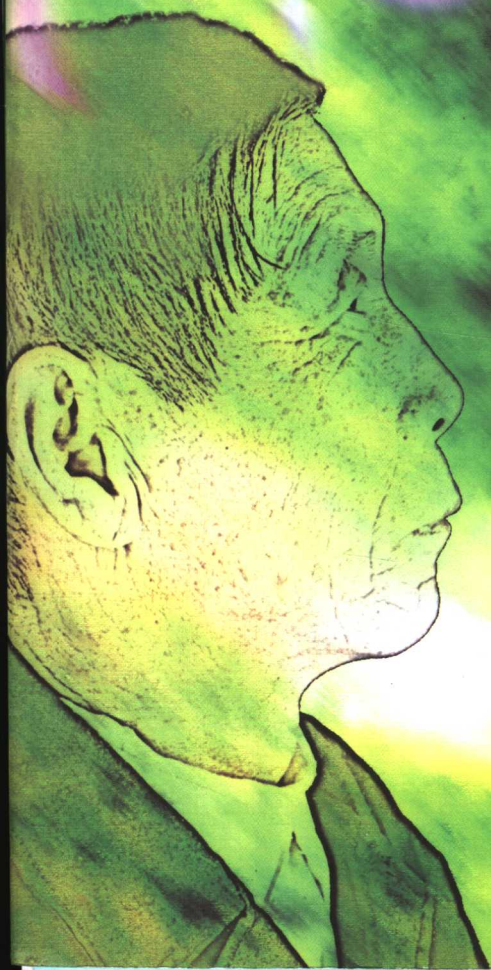


《도라지선정작가작품집》

비람의 색깔

홍영빈시집



연변인민출판사

《도라지선정작가작품집》

바람의 색깔

홍영빈시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선애

책임교정: 채 설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风的颜色 / 洪永彬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3 ISBN 7-80698-653-7

I. 风... II. 洪... III. 诗歌-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20432号

风的颜色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bs.com>)

印刷: 吉林省荣鑫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 / 36 印张: 4.625 字数: 95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653-7 / I · 94 (民文)

版次: 2006年4月第1版

2006年4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홍영빈(洪永彬) 필명 홍영

1939년 10월 16일(음력), 흑룡강 통하현 태생.

1973년 시로 문단 데뷔

현재까지 100여수의 시작품 발표.

1995년 흑룡강신문 《연고컵》 작품응모 수상

1997년 한국 KBS 장원상 수상

흑룡강조선족작가창작위원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회원

《도라지선정작가작품집》

시리즈 출판에 즈음하여

《도라지》잡지사 주필

김홍란

우리 시대는 점점 《바빠서 죽겠다》는 말에 입이 모아지고있다. 그만큼 할일이 있다는 말이 되고 사회가 발전했다는 말이 되겠다. 바쁜만큼 사람들 몸은 기계적이 되여가고 가슴은 메말라가며 갈수록 실리적이고 목적달성이 삶의 유일한 추구처럼 되여가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돈을 가져다줄수도 없고 지위를 만들어줄수도 없는 문학은 자연히 《뒤골목》 신세가 되여버렸다.

세인의 가슴을 감동으로 태워주던 문학은 어느때부터인가 《문학인들끼리 노는 잔치》라는 평을 꼬리처럼 달고 다니게 되었고 문학의 터전을 지키는 일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일과 등호를 치게 되었다.

《도라지선정작가작품집》 시리즈 출판에 즈음하여 1

그런 삭막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수 있는것은 그
래도 문학을 생명처럼 간주하고 우리 문학터전에 거름
한삽이라도 떠올리고저 애쓰는분들이 있기때문이 아닐
가. 더구나 쌀에 뉘처럼 한족들 속에 드문드문 섞여
살면서도 우리글로 된 문학작품을 열심히 쓰고 문학에
정진하는 북경이남, 연해지구 문학인들을 대할 때면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도록 감동이 된다.

《도라지》잡지사에서는 그 아름다운분들이 남긴
아름다운 글들을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기고 우리 문
학대오의 력량을 강화하고자 산재지구에 금싸락처럼
널려있는 작가들의 글을 책으로 묶어 《도라지선정작가
작품집》을 시리즈로 출판하기로 하였다. 10권정도의
시집, 수필집을 위주로 예산되는 총서는 1년동안에 완
성할 예정이다.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충족이 요청되는 시대다.
후진국이었던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경제적인 부유이다. 이 마당에 문화에 대한 갈구가 잠
시 뒤전일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해질 어느날 사람들은 다시 정신적인 충족을 갈구
하게 될것이고 문화는 재활기를 떨것이며 문학은 놀라
운 인기를 누릴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하게 된다.

《도라지선정작가작품집》시리즈가 진정 어려운
시기의 우리 문학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으면 한다.

2005년 5월 18일 길림에서

나는 시의 애독자이지 시를 쓸 사람은 못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몇차례 투고하던중 어느날 우연히 신문 지상에서 나의 졸작 《봄은 어디에》가 처녀작으로 발표된것이 계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 나도 독자만이 아닌 작자로도 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천생 병약한 몸을 가진 맏아들로 태어나 아래우 10여식구 대가족 가정의 부담을 진데다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크게 배운것도 없이 시인의 길을 걷는다는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음을 폐부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창작의 맥을 오래동안 끊었다 이었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것을 불행중 다행으로 여기는바이다. 보태고싶은 말은 매차의 이런저런 곤난을 삶의 산봉우리를 오르는 필요한 계단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오를수 없다는 삶에 대한 인생자세를 터득한 셈이다.

오늘 시집출판을 빌어 알게 모르게 나를 옆에서

항상 지켜준 마누라 김금녀에게 그리고 시창작초기에
나를 지도, 편달해주신 리삼월, 한춘선생님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며 또한 이 시집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준 홍
군식, 전경업 등 문우들에게도 사의를 표시하는바이
다. 《밥술이나 먹게 되면 문학창작의 필을 놓지 말
라.》고 하신 리삼월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먼저
사람되고 후에 돈버는것이 인생작업의 상수인것으로
아는바이다.

끝으로 나의 시가 이름모를 주인을 찾아 고된 인
생길에서 마른 목을 추겨주는 한컵의 생수(生水)로 되
여준다면 만족으로 생각할뿐이다.

홍영빈

2005년 3월 21일 청도에서

차 례

제1코너

담박(淡泊)한 인생에 담은 순간의 자리

바람의 매력	3
갈망	4
시와 인간	5
시와 시인	6
시의 개념	7
우리의 봄	8
38병(病)을 두고	9
착각	10
도시일화	11
줄어드는 미학과 더불어	12
받아들이는 예술	13
가신 님을 추억하여	14
새벽의 마음	15

- 16 나는 왜 시를 쓰는가
- 17 순간의 자리
- 18 50고개에 올라서서
- 19 인생일화
- 20 한계
- 21 마음의 무게
- 22 가는 길
- 23 속보기
- 24 된장국
- 25 무제
- 26 기회
- 27 겨울속의 꿈
- 29 다시 나무로
- 30 하늘의 뜻과 함께

제2코너

천상(天上)의 고독에 찍어놓은 소음인의 그림자

- 33 별 찾는 마음
- 34 조가비
- 35 동포
- 36 하나
- 37 천상의 고독
- 38 돌세계에서
- 39련습
- 40 그림자
- 41 나의 우상(偶像)
- 42 기대

우리 사는 자리	43
강변서 찍은 나의 사진에 실린 동화	44
산, 바다, 집	45
거부기	46
설을 맞으며	47
달, 텔레비죤, 나	48
돌아가는 세상	49
바다의 노래	50
내 이름을 두고	51
마음의 척도	52
에서 산다, 그리고	53
제구실	54
아리랑	56

제3코너

0에서 0까지 날아에는 농군의 가을정취

0에서 0까지	59
경쟁	60
내기	61
인생은 악기	62
피보다 진한것 없어	63
열린 박을 바라보며	65
나는 섬	66
절대와 상대	67
애인	68
가을정취	69
바다와 함께	70

- 71 나와 나의 시
- 72 도시와 농촌 그리고 나
- 73 같고 또 가는 세상
- 74 하루일화
- 75 성실의 등불
- 76 벼 익는 냄새
- 77 세월과 나
- 78 허줄한 생활의 밑바닥
- 79 기는 시늉
- 80 세월의 품에 안긴 세상살이 이야기
- 82 나는 안다
- 83 국기를 우러러
- 84 제비이야기
- 85 질경이
- 87 인생길
- 89 농민-금이 간 이름

제4코너

지고무상한 심지(心志)를
불태우는 시웅

- 93 고향땅을 떠난 길에서
- 97 큰물이 지나간 강변에
- 98 삶의 변증
- 99 나
- 100 구석철학
- 101 락엽지는 계절에
- 102 이러한 시인

시 짓는 나무	103
제비	104
시의 운명	105
나는 한살	107
나의 선생	108
별맛	109
물	110
고독	111
개미	112
지고무상(至高无上)	113
길	114
나눔의 자리	115
음과 양	116
우리 멋, 우리 맛	117
인생길	118
비석	119
도시	120
속심	121
소망	122
런정	123

하늘과 땅과 함께 호흡하는 시	
—흑룡강조선족창작위원회 회장 산천	124

제1코너

담박(淡泊)한 인생에

담은 순간의 자리

나를 놓고 말하면 이 둥근 땅덩이가
나를 앗힌 방석으로 되여줄 때
또한 나를 눕힌 침대로 되여줄 때
그리고 나를 실은 쪽배로 되여줄 때
더우기 별을 낚는 나의 낚시터로 될 때
나는 말할 자격을 얻는거다
그래서 더러 할 말이 있는거다.

— 《무제》

바람의 매력

아침에 일어나 바람옷 입고
바람으로 세수하고 바람으로 머리 빗고
오늘도 바람차를 물고 나서다

참으로 기묘하다
내 인생차가 허기를 만나 가동이 멎을적마다
열풍이 비를 실어다주어 기름이 되어주는것이
아쉬워도 즐겁다

긴긴 려로에서 만난 금잔디에 차를 세우고
슬그머니 드러누워 로고를 풀어볼라치면
때 아닌 삭풍이 찬 구름을 몰아다가
눈꽃보라 날려주는것이
아마도 내 몸에 풍매화의 넋이 실렸나보다

갈 망

도회지 한복판 려인숙 층집에서 맞은 아침, 창턱과 베란다살이하는 고독한 란초와 인사 나누고 포개여 지고 덧놓여져 장성을 이룬 협곡을 빠져나와 콘크리트로 봉해버린 광장입구에서 다리섬하다가 저기 숨쉬는 손바닥만한 잔디밭이 불러주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락타가 되다. 이윽고 열과 빛과 소리와 폐기들에게 스스로 붙잡혀 숨막히고 눈 멀고 귀문 닫긴 수인-달팽이로 오그라들다. 불운의 소식을 알고 달려온 고향산천이 나를 빼내여 아지랑이 잔물결속을 자유로이 헤엄치는 봄날의 종다리 한마리라도 아껴 지키라는 초병-소나무 정자우에 비껴선 백학으로 화신시킨다. 하여 내 마음의 공지에 오솔길 내여 지경을 정하고 오른편엔 어제를 부러워하며 올려다보는 래일을 구축한다. 왼편엔 래일이 못내 그리워 내려다보는 어제를 가꾸다. 그리고 천금의논도 해보리라. 오가는 길손 맞아들여 조롱안에 갇히운 한쌍의 원앙이 되지 말기를 꽃꿀 한방울 지니지 못한 비닐꽃이 되지 말기를, 웃다가 운명하는 심혈관병 환자가 되지 말기를, 더우기는 일보전진이 일보퇴각으로 되지 말기를...